

평생교육진흥원 소식

제7호 2009년 9월 *Special Theme* •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특집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평생교육진흥원 소식

2009년 9월



권두언

언어사용의 혼란 / 01



평생교육 時論

평생학습축제의 의의와 과제 / 03



평생교육진흥원 들여다보기

〈어제는...〉

01. 2009년 제2차 평생학습 중심대학 제2유형
관계자 워크숍 및 컨설팅 개최 / 06
02. 제49회 일본사회교육연구전국집회 참석 / 06
03. 제2차 평생교육정책포럼 개최 / 08

〈오늘과 내일〉

04.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행사장 배치도 / 09
05.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공식일정 / 11
06.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홈페이지 / 12
07. 평생학습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felong Education) 개최 / 13
08. 제6회 평생학습대상 / 13
09. 제2차 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 운영 / 13
10. 2009년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운영 / 14
11. 학점은행제 타 전공 학위취득자 등 시행령 개정
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 / 15
12. 2009년도 학점은행제 후기 학위 수여자 및 관련 통계 / 16
13. 9월 독학학위제 소식 / 20
14.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준비를 위한
TIP ① / 20



역사의 학습인

지역공동체 평생교육 '가나안 농군학교'의
설립자 일가(一家) 김용기 / 23



평생교육기관 탐방

소외계층의 평생배움터 시민교육센터(군산청학야학교) / 25



우수 프로그램 보따리

엄마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경제교육 프로그램 / 26



평생교육 정책동향

평생학습문화 확산 - 평생학습축제 / 29
해외 정책동향 / 31



전국은 평생학습중

01. 경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교육기관 명강사 육성 연수 실시 / 32
 02. 수원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 32
 03. 한-덴마크 교육컨퍼런스 개최 / 33
 04. 학습-고용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 34
- 학회소식 / 35



평생교육 책갈피

38 · 145 / 36



알리는 말씀 / 37



언어사용의 혼란

서울대 명예교수 및 고신대 석좌교수 손 봉 호



나는 대학에서 영어영문학과에서 공부했고 한 학기지만 대학원에서도 영어학을 전공했다. 영어 외에 화란어, 독일어, 불어, 남아연방어도 배우고 라틴어와 희랍어도 사전을 찾을 줄 알 정도는 배웠다. 히브리어도 배웠지만 너무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지금은 다 잊어버렸다. 외국어에 능통하지는 못하지만 언어 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어로 글을 쓸 때는 가능하면 외래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텔레비전, 라디오를 각각 ‘원시기’(遠視機), ‘원청기’(遠廳機)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만큼 극단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신문 논단에서는 에어컨을 ‘냉방기’라 썼고, 핸드폰은 휴대전화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서양 언어는 많이 배웠는데도 나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자도 적게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운행안내기?) 에서 ‘사고다발구역’(事故多發區域)이란 말을 들으면 화가 난다. ‘사고 많은 곳’하면 알기도 쉽고 길어도 짧아지는데 왜 구태여 사고다발지역이라 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어떤 곳에는 ‘오물투기금지’(汚物投棄禁止)란 경고판이 서 있다. ‘쓰레기 버리지 말 것’보다 두 글자가 적지만 어린이들은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다. 한문으로 써야 권위가 선다고 생각 하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닌가 한다. 법률 용어가 거의 다 한문으로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사람들이 한자 단어는 제 데로 쓰는 것도 아니다. 방송국 아나운서 (고지자(告知者?))가 방송 사고를 내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것을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하고, ‘벼락이 쳐서’ 혹은 ‘낙뢰가 되어서’ 해야 할 것을 ‘낙뢰가 떨어져서’한다. 어떤 연속방송극에서는 왕이 암행어사에게 ‘백성의 민심을 살피고 오라!’ 하는 장면이 나온다. ‘민심을 살피라’ 혹은 ‘백성들의 생각을 알아보라’ 해야 했다. 심지어 어떤 부총리가 신문에 ‘시혜를 베푸는 차원’에서라고 쓴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은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혹은 ‘시혜의 차원에서’라고 썼어야 했다. ‘역전앞에서 축구차는’ 식의 한국어가 범람한다.

특히 존대 말 사용은 완전히 엉망이라 해야 할 정도다. 어떤 방송 고지자가 한 노인과 대화하면서 “할아버지, 애완견 계세요?” 하고 물었다. “선생님 자동차 잘 달리십니까?” “집이 참 좋으시네요.”는 예사다. 옛날 농담에 목침을 베고 낮잠을 자던 노인이 천정에 매 단 메주가 머리에 떨어져 죽었는데, 빈소에 온 문상객에서 상주가 사고를 설명하면서 “메주님은 때리시고, 목침님은 받으시고, 지가 안 죽고 백여!” 했다는 것이 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언어는 사용에 의하여 그 의미와 용법이 결정된다. “한 단어의 의미는 사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Meaning of a word is its use)란 철학자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의 명언이 있다. 잘못된 용법도 자주 쓰이면 표준이 되고 만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당선되다’이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당선하다’라 해야 한다. 당선은 ‘당’자가 이미 ‘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선되다’는 이중 수동이 된다. 즉 ‘선출을 당하게 되었다’가 된다. 부산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되어지다’와 같은 수동태의 중복이다. 그런데도 ‘당선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나를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다.

순수 우리말과 한자에서 유래된 것을 같이 붙여 한 단어로 쓰는 것도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 요즘 가끔 ‘마음적으로’란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느껴진다. ‘마음’은 순수 우리말이고 ‘적(的)’은 한자에서 온 어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든 일곱’ 해야 할 것을 ‘팔십 일곱’ 해도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 경상도 사람들이 워낙 오래 그렇게 잘못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도 라틴어와 희랍어 어원을 섞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을 금기시켰지만 불란서 철학자 콩트가 라틴어 어원을 가진 *société* (*societas*)와 희랍어 어원에서 온 *logos*(*logos*)를 섞어 *sociologie* (사회학)이란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을 때 이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국제적인 학술용어가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언어란 살아 있어서 변하기 마련이고 영원불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정확하게 써야 한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1학년 때 영어와 철학만 가르친다 한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60년대에서는 그렇게 했다. 그만큼 자국어(한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우리말 바르게 쓰는 것에 관심이 너무 적다.

요즘 영어 열풍이 불고 있다. 삶의 성패가 마치 영어 구사 능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인간 힘을 다 쓰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를 잘하기 전에 우리말을 많이 알고 정확하게 써야 생각이 풍부해지고 정확해진다. 외국어 익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 우리말에 약하면 외국어도 잘할 수 없게 된다.

“언어는 의식이다.”란 주장이 있다. 언어 사용이 혼란스러운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말을 올바르게 씀으로 생각을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생각함으로 말을 제대로 써야 한다. 우리 사회에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졌으면 한다.

평생학습축제의 의의와 과제

송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최 은 수



평생학습축제는 지역공동체의 평생학습문화를 정착하고 진작하기 위한 풀뿌리 주민 축제이다. 이는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스스로 학습하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민관 합동 운동이다. 그래서 평생학습축제는 평생 학습자와 평생교육 기관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학습공간이다. 이 공간을 통하여 기존 학습자의 학습 결실을 새로운 씨앗으로 잉태하고, 이 씨앗을 참가자 모두에게 나눠줌으로써, 학습자들의 평생학습의식 고취, 평생학습참여 촉진,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평생학습의 성과 공유 등을 가능케 하며, 궁극적으로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

평생학습축제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일찍부터 시행해 온 ‘마쓰리’라는 지역축제의 전통을 바탕으로 1979년 가케가와시의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거쳐 1989년 치바현에서 열린 ‘만나고 싶은 것은 새로운 나’라는 주제로 열린 축제가 바로 평생학습축제의 최초의 경험이다. 한편, 유네스코는 1997년 제5차 성인교육 국제회의에서 국제연합(UN)의 ‘국제성인학습자주간’ 제정을 의결했고, 1999년 11월 ‘국제성인학습자주간’ 개시에 관한 유엔의 공식 결의가 있었다. 2000년 9월 8일에는 독일 하노버에서 ‘학습사회 형성을 위한 EXPO 지구대회’가 개최되었고, 이를 기폭제로 평생학습축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현재 영국, 호주, 독일, 미국,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48개국에서 성인학습자 주간을 이용한 평생학습축제를 매년 국가 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1년 이후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과 맞물려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축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전국 평생학습축제는 2001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어 충청지역평생교육센터가 주관하였으며, 제2회는 2003년 대전시에서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대전지역 평생교육센터가 주관하였다. 제3회는 2004년 제주도, 제4회는 2005년 경기 광명시, 제5회는 2006년 부산 해운대구, 제6회는 2007년 경남 창원시, 그리고 제7회는 2008년 전남 순천시에서 개최되었다.

그 동안 7 차례에 걸친 전국평생학습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 관계 기관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주관 하에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 전국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들이 함께 행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평생학습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민·관 협력체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열렸던 순천에서의 제7회 축제에서는 생태 가치와 문화 자산을 평생학습축제에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순천의 자연, 역사, 문화 등 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평생학습축제를 통한 지역 경쟁력 및 시민들의 자긍심을 제고했다. 1기관 1홍보관+1체험 프로그램 통합 운영으로 평생학습도시와 기관의 특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생애 단계별 평생학습마을 구성 등 전 세대와 전 계층이 즐겁게 순고했다 축제로서의 발전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학술 행사 및 세미나 개최 등으로 평생교육 전문가들의 학문특성교류와 결속의 계기를 마련순천에서 개·폐막식의 여수 MBC, 전국 방송, 금호고속버스, 서울지하철 및 각종 현수막 홍보 등, 다각적인 평생학습축제의 홍보 시도했다 눈에 띄는 성과였다.

내일의 성공적인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위한 발전 방안 및 개선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의 원래의 목적과 이념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 축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평생교육 전공자 및 실무자들로 이루어진 기획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학습축제의 기본적 방향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성격 등 평생학습축제에 관한 관계자 및 주민들의 요구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평생학습축제 추진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조정 강화 및 효율적인 협력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평생학습축제 개최지인 지자체 내의 모든 부서들이 학습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 단체장의 평생학습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성공적인 평생학습 축제 개최를 위한 헌신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청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 기업들 및 유관 단체들을 설득하여 강력한 후원자로 역할을 부여하고, 학습축제 개최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축제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적 특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자료 수집과 지역 특성의 고유한 축제 이미지를 창출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제를 미리 실시함으로써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제고, 홍보 효과 및 집단 지혜를 모으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축제 행사 시기와 장소도 사전에 검토하고 잘 조정해야 한다.

넷째, 과학적인 축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축제에서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 예를 들면 직접 홍보 매체로서의 팸플렛과 리플렛, 포스터 등과 간접 홍보 매체로서의 신문과 TV, 라디오, 인터넷 홍보, 이벤트 등을 활용해서 체계적이고 실속 있는 홍보를 펼쳐나가야 한다. 특히 축제 공식 사이트는 물론 블로그, 동아리 중심 카페, UCC, 인터넷 방송 등 유비쿼터스형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주제와 상황 및 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간다.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학습축제 개최 지자체가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학습축제의 성과와 정체성 및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세미나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여섯째, 평생학습 참가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물리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행사장을 배치해야 한다. 즉 지자체의 다양한 시설을 관계 맺어 적극 활용하되, 참가자들이 행사장의 구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배치한다. 동시에 참가자의 행사장 동선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권장 동선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참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특히 안내요원에 대한 별도의 사전 교육을 통해 단순히 장소 및 운영 안내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축제를 즐기고자 하는 방문객의 축제 참여 컨설팅트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한다.

일곱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축제 개최 목적의 하나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축제 개최로 인한 직접적

인 효과와 지역 이미지 제고를 통한 간접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단위나 단체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주변 연계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지역 특산품의 전시와 판매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지자체의 축제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전국평생학습축제의 경우 여타의 관광형 축제나 이벤트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공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행사 예산을 거의 전적으로 국고 지원과 지자체 충당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각 행사 주최별로 경쟁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부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임대사업이나 휘장사업, 협찬 등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끝으로 축제 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성과의 공유·확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축제의 성과 평가는 물론 축제의 비전과 목표, 기획과 실행 등 축제 전반을 전문적으로 심의·평가할 상시 특별 조직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축제 성과를 단순히 프로그램 수와 참여기관 수 정도로 파악하거나 혹은 축제 운영 주체의 주관적 평가로 그치기보다는 평생교육 및 축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 평가위원회를 조직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체제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01. 2009년 제2차 평생학습 중심대학 제2유형 관계자 워크숍 및 컨설팅 개최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에서는 2009년도 제2차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제2유형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09년 제2차 프로그램 중심형으로 선정된 30개 대학과 46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1차 워크숍 및 컨설팅을 8월 24일(월)~25일(화)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다. 대학 담당교수와 행정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등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규 선정대학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프로그램 중심형의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협의하는 워크숍과 권역별 전문 컨설팅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첫날은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한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강화 특강과 우수대학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실무협의방안의 액션플랜(Action Plan)을 수립하였다. 다음날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발표 특강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세분의 전문컨설팅 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운영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전반에 걸쳐 컨설팅이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 및 컨설팅을 통하여 2009년 제2차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제2유형에 참여하는 대학과 지자체가 사업 추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하며 전문 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문의 _ 평생교육정책본부 정책개발팀 이세정 · 박진홍 ☎ 02)3780-9755, 9751

02. 제49회 일본사회교육연구전국집회 참석

지난 2009년 8월 22일(토)부터~24일(월)까지 3일 동안 제 49회 사회교육연구전국집회 信州(신슈)·飯田(이다)·下伊那(시모이나) 집회가 長野県阿智村(나가노현 아치무라)에서 개최되었다. 나가노현에서는 1967년 諏訪(스와), 1975년 山の内(야마노우치), 1991년 松本(마츠모토)에 이어 올해가 4번째 개최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학습을 펼치자’라는 현대적 의의를, 신슈·이다·시모이나 지역의 사회교육실천에 근거해 밝히는 것이 본 집회의 기본적인 과제였다.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의 개회식 인사말〉

본 집회에서는 과제의식과 시점을 근거로 해 다음의 3가지를 집회 과제로서 설정했다. 첫째, 인간다운 삶과 지역과제와 마주해 풍부한 사회교육실천, 공민관 실천을 축적해 온 신슈·이다·시모이나 지역의 사회교육 실천에서 배움. 둘째, 제47회 阪奈和(한나와)집회, 제48회 北海道(홋가이도)집회의 성과를 이어 전국과 신슈·이다·시모이나 참가자에 따른 풍부한 공동학습의 장으로 함. 셋째, 집회 테마에 내걸린 주민자치력을 향상시키는 사회교육의 과제를 집회 전체 프로그램을 통해 밝힘이



〈제49회 일본사회교육연구전국집회 참석자〉

그것이다. 본 집회의 참가자로는 일본측 참가자로 小林文人(코바야시 분진, 동아시아사회교육연구회)을 비롯하여 松下広(마츠시타 히로, 제49회 사회교육연구전국집회 실행위원장), 上田幸夫(우에다사치오, 사회교육추진전국협의회 위원장), 岡庭一雄(오카니와 사카이, 아치무라 촌장)을 포함한 각 지역 공민관 주사들과 한국측 참가자로 평생교육진흥원 박인주(원장), 박인중(경영기획실장), 최일선(대외협력팀장), 이화용(학위관리상담 본부),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최운실(회장)외 평생교육관계자 14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은 본 집회에서 개회식에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평생교육 정책들을 간략히 소개하였으며, 앞으로 양국의 평생교육에 대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제49회 일본사회교육연구전국집회 분과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분과별 주제 토론〉

◆ 분과별 주제

분과	주 제
1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침해와 아이 양육
2분과	지역청년의 자립지원과 사회참가
3분과	지역에 되살아나는 여성의 힘
4분과	다문화공생 인권존중을 목표로 하는 학습
5분과	평화를 위한 학습 문화활동
6분과	장애자와 지역
7분과	고령자가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지역 만들기
8분과	자연을 지키기 자연과 함께 사는 조합
9분과	건강~공중위생의 실현과 건강실현을 목표와의 맞대응
10분과	누구든 안심하고 풍족하게 사는 지역 만들기
11분과	지역 지자체를 만드는 사회교육실천의 구조
12분과	노동 그 지역 산업
13분과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조에 따른 지역만들기
14분과	지역에 뿌리를 둔 생산 스포츠
15분과	사회교육에 설립 카운셀링 마인드
16분과	삶에 활용되는 공민관-다시 새로이 지역과 공민관과의 관계 생각하기
17분과	자치공민관등에 따른 자치와 연대를 쌓는 소지역에서의 활동
18분과	지역에근거했던주민과함께존재하는명실상부한도서관
19분과	이다 시모이나의 에코뮤지움과 박물관-박물관이 나아가야할 방향 생각하기
20분과	공민관직원의 역할-시모이나 테제의 지역 연합
21분과	아이 키우기와 연결되는 성인 학습
22분과	아이의 생존력을 키우는 학교교육 사회교육 연계
23분과	한계집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합병 자립 지역자치 자치회활동과 주민자치
24분과	대학과 지역연계



폐회식에서는 “이번 집회의 ‘지역만들기, 인간답게 살기위한 학습을 넓히자’라는 주제를 계속적으로 내년 제50회에서도 채택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현대사회에 대해 사회교육이 해야 하는 역할, 그 존재 이유를 폭 넓게 확인하고 현대적 의미를 심화시키는 기회로서 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2010년 일본사회교육연구전국집회는 도쿄에서 8월 29일부터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본 집회 참석후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박인중, 최일선, 이화용)는 8월 25일 일본문부성 산하 국립교육정책연구소(NIER)를 방문하여 양기관의 교류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문의 _ 학위관리상담본부 학사상담팀 이화용 ☎ 02)3780-9836

03. 제2차 평생교육정책포럼 개최 _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평생교육의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탐색

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5월 개최된 제1차 평생교육정책포럼에 이어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평생교육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주제로 9월 3~4일 양일에 걸쳐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에서 제2차 평생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첫째날은 진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차윤경 한국다문화교육학회 부회장(한양대학교 교수)이 기조강연으로 ‘세계화 시대, 선진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의미’를 발표하였다. 기조강연을 통해 차윤경 교수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소통은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강조하면서 ‘21세기 한국은 다양한 문화의 평화적 공존과 상호 창조적 융합이 가능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질적인 문화를 존중하고 활용할 줄 아는 세계시민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어진 Session 1에서는 성낙돈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다문화 사회, 평생교육의 역할과 과제’, 박윤경 청주교육대학교 교수가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모경환 서울대학교 교수가 ‘다문화 교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둘째날, Session 2에서는 이학춘 동아대학교 교수의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실태와 교육적 비전’을 시작으로 김성희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이 ‘다문화사회, 공동체사업의 추진성과와 방향’을, 서종남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부소장이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역할’, 김해성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표가 ‘다문화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과 활용’, 이해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이 ‘다문화 가정을 위한 평생교육정책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주제발표에서 이학춘 교수는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실태를 되짚어 보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학교교육 차원의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해진 교육부 사무관은 현재 교과부에서 추진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강점 발굴과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포럼에는 이틀에 걸쳐 교육현장의 실무자,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를 비롯해 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200여명이 참석하여 다문화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문의 _ 경영기획실 전략기획팀 김세화 · 안지영 ☎ 02)3780-9713,9712]

04.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행사장 배치도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행사장 배치도 1〉



배움 Zone

- ① 주계관
- 지역정보센터 홍보제원관
- 평생학습도시관 4개동
- 직마당관
- 학습동아리 작품전시관

즐거 Zone

- ② 구리시 지역학습 홍보제원관
- 평생학습 취업 페스티벌
- 학습도시 특산물 홍보관대관
- 전국 우수 및 특화프로그램 홍보 제원관
- ③ 학원은행기관 홍보제원관
- ④ 지역교육청 및 비공립학교

팔참 Zone

- ⑥ 축제 및 피크닉 공간(별도시설)
- 대인무대(별도 시설)
- 광개토대왕마당(별도 시설)
- ⑦ 웰빙터널
- ⑧ 백일장 마당

나눔 Zone

- ⑤ 종합상황실
- 자원봉사자센터
- 프레스센터
- 재난상황실
- 외로지원센터
- 약국
- 미아보호소
- 유도차, 휠체어 대여
- ⑨ 종합안내소
- 직원휴게소
- KT정보마당
- 협력지원센터
- 본실출전터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행사장 배치도 2〉

05.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공식일정

(The 8th National lifelong Learning Festival)

1 개막행사(2009. 10. 9)

□ 주요일정

행 사 명	시 간	장 소	참석대상자	운영기관
축제 테이프 커팅	10:00 ~ 10:30	구리한강 시민공원	• 시장, 교육감, 진흥원장 • 평생학습지도자 등	구리시



행 사 명	시 간	장 소	주요 참석자	비 고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회의	14:00 ~ 16:00	그랑펠리스컨벤션 센터 9층 (그랜드볼룸)	• 평생학습도시 시장, 군수 • 평생학습도시 교육장	평생교육 진흥원
전국 시·도 교육감간담회	15:00 ~ 16:00	그랑펠리스 컨벤션센터	•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경기도 교육청



행 사 명	시 간	장 소	주요 참석자	비 고
평생학습 관 계 관 환영만찬	16:20 ~ 17:20	그랑펠리스 컨벤션센터 9층 (그랜드볼룸)	•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 16개 시·도 교육감 • 16개 지역정보센터장 • 축제조직위원회 위원 • 축제운영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시의원 등(250여명 참석 예정)	구리시

※ 17:20~17:30 버스승차 / 17:30~17:50 이동



행 사 명	시 간	장 소	주요 참석자	비 고
홍보·체험관 프로그램관람	17:50 ~ 18:20	구리한강 시민공원 주 행사장	• 환영만찬 참석자 전원 (주제관 → 홍보전시관 → 야외전시장)	구리시



행 사 명	시 간	장 소	주요 참석자	비 고
개 막 식	18:30 ~ 20:30	구리한강 시민공원 야외무대	• 환영만찬 참석자 전원 • 기관별 초청 내빈 •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 일반 관람객 등(20,000여명 예상)	구리시

※ 개막식 종료 후 내빈은 워커히 호텔까지 단체로 이동



2. 폐막행사(2009. 10. 12)

행 사 명	시 간	장 소	주요 참석자	비 고
폐 막 식	17:00 ~ 18:00	구리한강 시민공원	- 차관, 시장, 교육감, 원장 - 차기 개최지 지자체장 - 평생학습도시 지도자 및 관계자	구리시

3. 기타행사(2009. 10. 11)

행 사 명	시 간	장 소	주요 참석자	비 고
평생교육인의 밤	19:00~21:00	그랑펠리스 컨벤션센터	- 시장, 원장 - 전국 평생학습 관계자	평생교육진흥원

06.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홈페이지(<http://festival.ill.or.kr>)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홈페이지 메인화면〉

07. 평생학습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felong Education) 개최

평생교육진흥원은 10월 8일(목) ~ 9일(금) 양일간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 아트룸에서 평생학습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본 국제회의는 평생학습축제 학술행사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평생학습의 동향과 과제 - 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Trends and Challenges of Community-Based Lifelong Learning Focusing on Lifelong Learning Cities)’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날 10월 8일(목)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본 회의는 한·중·일의 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 고바야시 분진 교수(전 도쿄가쿠게이대학 명예교수, 도쿄·오키나와·동아시아 사회교육연구회 고문)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박인종(평생교육진흥원 경영기획실장)의 한국사례 발표, 마찌다 다이ске(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의 일본사례 발표, 한민(중국 국가발전연구센터)의 중국사례가 발표된다. 주제발표 이후에 이어지는 토론은 발표자와 일본 류에이 이시아마(토호쿠대학) 교수 등 한·중·일을 대표하는 평생교육 전문가들의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날은 호주와 영국의 평생학습도시를 기반으로 한 평생학습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 호주 그렉 퍼트(호주성인학습연합회, ALA)와 영국 재닌 엘드레드(영국국가성인계속연구소, NIACE)의 주제발표 후에 토론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본 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평생교육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본 회의 중에는 동시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며, 첫날은 한-일, 둘째날은 한-영 통역으로 진행된다.

문의 _ 경영기획실 대외협력팀 윤운진 [☎ 02)3780-9717]

08. 제6회 평생학습대상

제6회 평생학습대상(시상일: 12월 17일) 접수가 8월 14일 마감되어 지난 8월 26일 1차 심사가 진행되었다.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교육자 부문이 22명, 개인학습자 60명, 교육기관 및 단체 26개, 학습동아리 21개, 기초자치단체 10개, 학교 및 학교부설 평생교육원 9개, 기업 1개로 총 149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1차 서류 심사 결과, 개인학습자 6명, 성인교육자 6명, 교육기관 및 단체 7개, 학습동아리 6개, 학교 및 학교부설 평생교육원 6개, 기초자치단체 7개가 선정되었다. 오는 9월 15일과 18일에 1차 심사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2차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의 _ 평생교육정책본부 사업진흥팀 엄보현 [☎ 02)3780-9764]

09. 제2차 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 운영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교원 연수를 이수한 교원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 바, 평생교육진흥원은 2009년 제1·2차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을 통해 문해교육교원 연수생을 선발하였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제1차 모집에서는 기본, 심화1·2·3과정이 개설되어 총 145명 선발되었으며, 이번 7월에 실시한 제2차 모집에서



는 기본, 심화1·3과정, 기관경영자 과정이 개설되어 총 137명이 연수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번 제2차 문해 교육교원 연수과정은 총 255명이 신청하였으며, 심화과정은 3명 중 1명이 선발되는 경쟁률로 다른 과정에 비해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제2차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은 9월 1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연수과정 안내는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보망 www.ll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2차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 개최

연수과정 구분	이수시간	일	시	개최 장소
심화 ①과정	22	2009. 9. 14~16	3일	삼경 C&M 교육센터
심화 ③과정	42	2009. 9. 14~16	3일	삼경 C&M 교육센터
기본 과정	74	2009. 9. 17~19 2009. 9. 24~26	6일	평생교육진흥원
기관경영자 과정	16	2009. 9. 21~22	2일	평생교육진흥원

문의 _ 평생교육정책본부 연수문해팀 서영아 · 전승희 ☎ 02)3780-9759~60]

10. 2009년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운영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중인 현직 평생교육사의 평생교육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9월 17일과 9월 18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보수교육은 참가대상에 따라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제1차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은 실무자과정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3년 미만 근무하고 있는 현직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제2차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은 지도자 과정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기관에서 기관경영자 및 부경영자로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보수교육은 8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며 각 차수별로 선착순 50명씩의 연수생을 모집한다.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의 개회식과 정찬남 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개최되는 ‘2009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에서는 평생교육사의 새로운 비전, 평생교육법의 이해, 평생교육의 철학적 재구성 및 역사적 재이해, 평생교육 정책의 이해, 평생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평생교육의 기본적인 지식과 현장과의 연계 등에 대한 최적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_ 평생교육정책본부 연수문해팀 서순영 · 윤정은 ☎ 02)3780-9757~8]

11. 학점은행제 타 전공 학위취득자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타 전공 학위연계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을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다.

1 학점은행제 타 전공 학위연계자 학점인정 기준

● 학점인정 시점

- '09. 9. 1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타 전공 학위취득 학점인정은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습경험에 한하여 학점인정

● 학점인정 학점원 확대

-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먼 제교육과정, 자격취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까지 확대되어 학점인정 가능
- 다만, 자격 취득 및 중요무형문화재에 의한 학점은 경험학습에 대한 인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학위 취득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학점인정

● 학점인정 기준

- 타 전공 학위연계시 자격증 인정 기준을 학사/전문학사 모두 1개까지만 인정함(기 학점인정 자격증 불가)
- 18학점 이상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이수한 전공학점이 포함되어야 함.
 - 타 전공 학위수여 요건이 전공 48학점(학사학위)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 18학점 이수규정도 전공학점을 의미함
- 학위취득 후 타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동시에 복수의 전공을 학습하여 학점인정 및 학위취득 불가
 - 제1의 타 전공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제2의 타 전공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

2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개선방안 관련 지침 수정·보완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독학사 학위취득자의 학점취득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 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

● 개정사항

구분	현 지침	개정내용
내용	공인회계사 등 자격 취득시험 응시 등을 목적으로 학점을 등록한 독학사 학위취득자가 <u>동일 전공의 학위취득과 관련된 학점으로 활용은 불허</u>	독학사 학위취득자는 공인회계사 등 자격 취득시험 응시 등의 목적을 위해서만 단계별 시험합격 또는 면제 교육과정 이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 가능, 해당 학점은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 관련된 학점으로 활용 불가

3 시행일 : 2009. 9. 1

12. 2009년도 학점은행제 후기 학위 수여자 및 관련 통계

학점은행운영본부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를 선정하여, 2009년도 후기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를 선정하였다.

◆ 2009년도 후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자

구분	학위수여자
전문학사	105
학 사	973
계	1,078

◆ 2009년도 후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자

구분	학위수여자
전문학사	4,923
학 사	12,127
계	17,050

■ 2009년 후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자 관련 통계

● 성별

(단위 : 명, %)

구 분	남 자	여 자	계
전문학사	1,013 (20.6)	3,910 (79.4)	4,923 (100.0)
학 사	4,865 (40.1)	7,262 (59.9)	12,127 (100.0)
계	5,878 (34.5)	11,172 (65.5)	17,050 (100.0)

● 연령별

(단위 : 명, %)

구 분	~24세 이하	25세~30세미만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전문학사	394 (8.0)	886 (18.0)	2,084 (42.3)	1,093 (22.2)	466 (9.5)	4,923 (100.0)
학 사	1,012 (8.3)	3,770 (31.1)	3,971 (32.8)	2,307 (19.0)	1,067 (8.8)	12,127 (100.0)
계	1,406 (8.2)	4,656 (27.3)	6,055 (35.5)	3,400 (19.9)	1,533 (9.0)	17,050 (100.0)

● 학점원별

(단위 : 학점, %)

구 분	평가인정 학습과목	자격증 취 득	독학사		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 등 록	무형 문화재	계
			시험합격	시험면제				
전문학사	63,841 (20.5)	14,395 (4.6)	1,811 (0.6)	339 (0.1)	25,136.5 (8.1)	206,289 (66.2)	-	311,811.5 (100.0)
학 사	247,367 (19.9)	135,291 (10.9)	9,935 (0.8)	1,130 (0.1)	540,169.5 (43.4)	311,976 (25.0)	485 (0.0)	1,246,038.5 (100.0)
계	311,208 (20.0)	149,686 (9.6)	11,746 (0.8)	1,469 (0.1)	565,306 (36.3)	518,265 (33.3)	485 (0.0)	1,557,850 (100.0)

● 지역별

(단위 : 명, %)

구 분	전문학사	학 사	계
서울	879(17.9)	3,329(27.5)	4,208(24.7)
부산	196(4.0)	659(5.4)	855(5.0)
대구	150(3.0)	513(4.2)	663(3.9)
인천	281(5.7)	635(5.2)	916(5.4)
광주	126(2.6)	303(2.5)	429(2.5)
대전	211(4.3)	473(3.9)	684(4.0)
울산	60(1.2)	171(1.4)	231(1.3)
경기	1,350(27.4)	2,925(24.1)	4,275(25.1)
강원	213(4.3)	337(2.8)	550(3.2)
충북	196(4.0)	303(2.5)	499(2.9)
충남	272(5.5)	401(3.3)	673(3.9)
전북	252(5.1)	503(4.1)	755(4.4)
전남	154(3.1)	317(2.6)	471(2.8)
경북	246(5.0)	485(4.0)	731(4.3)
경남	294(6.0)	678(5.6)	972(5.7)

구 분	전문학사	학 사	계
제주	43(0.9)	95(0.8)	138(0.8)
계	4,923(100.0)	12,127(100.0)	17,050(100.0)

● 최종학력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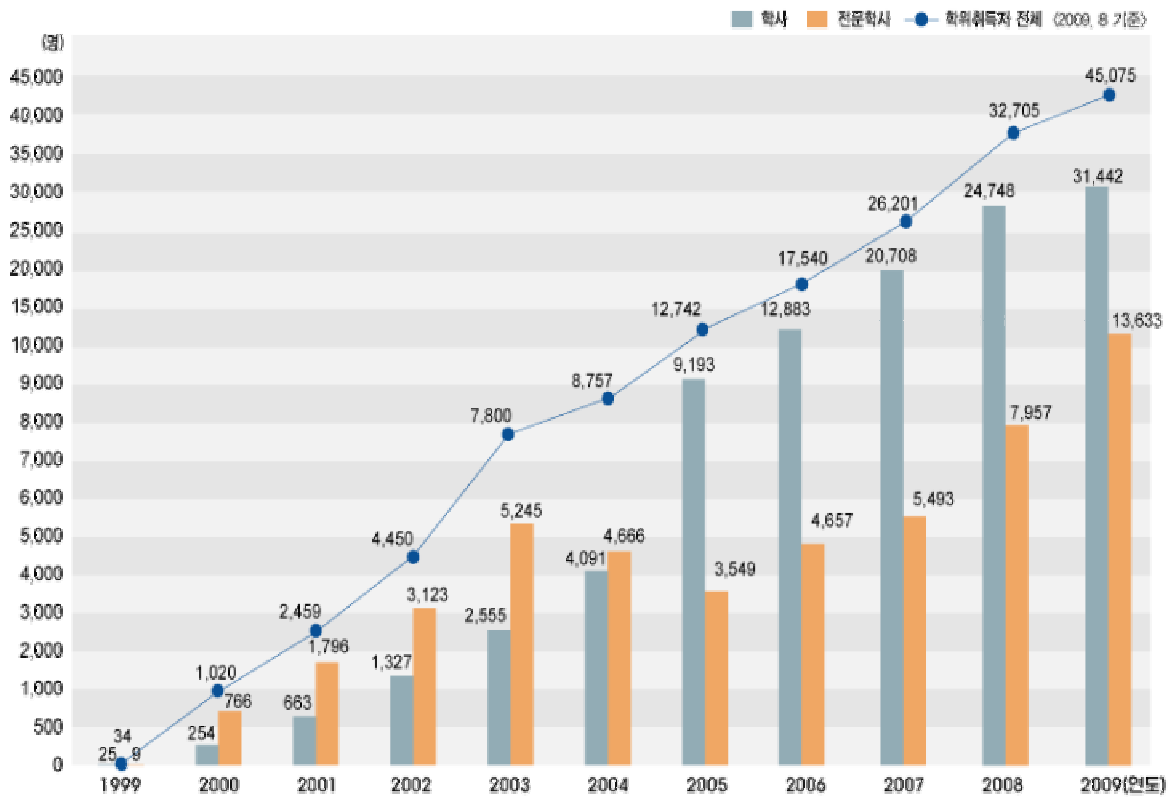
구분	고등 학교 졸업	전문 대학 중퇴	전문 대학 졸업	전문대 재학	전문 대학 (3년 중퇴)	전문 대학 (3년 졸업	전문 대학 (3년 재학	대학교 중퇴	대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학력 인정교	외국인 학교졸	외국 고교 졸업	외국 전문 대학 졸업	외국 대학교 졸업	학점 은행 전문 학사 졸업	학점 은행 학사 졸업	기타	계
전문 학사	1,847 (37.5)	204 (4.1)	2,272 (46.1)	-	3 (0.1)	81 (1.6)	-	460 (9.3)	22 (0.4)	-	10 (0.2)	-	-	4 (0.1)	-	5 (0.1)	1 (0.0)	14 (0.3)	4,923
학사	872 (7.2)	192 (1.6)	2,974 (24.5)	-	9 (0.1)	2,007 (16.5)	-	727 (6.0)	5,215 (43.0)	-	12 (0.1)	-	-	-	24 (0.2)	49 (0.4)	30 (0.2)	16 (0.1)	12,127 (100.0)
계	2,719 (16.0)	396 (2.3)	5,246 (30.8)	-	12 (0.1)	2,088 (12.2)	-	1,187 (7.0)	5,237 (30.7)	-	22 (0.1)	-	-	4 (0.0)	24 (0.1)	54 (0.3)	31 (0.2)	30 (0.2)	17,050 (100.0)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현황

구 분	전문학사	학 사	소 계
1999년도 후기	9	25	34
2000년도 전기	539	111	650
2000년도 후기	227	143	370
2001년도 전기	1,462	267	1,729
2001년도 후기	334	396	730
2002년도 전기	2,562	718	3,280
2002년도 후기	561	609	1,170
2003년도 전기	4,398	1,288	5,686
2003년도 후기	847	1,267	2,114
2004년도 전기	3,980	2,236	6,216
2004년도 후기	686	1,855	2,541
2005년도 전기	2,981	4,751	7,732
2005년도 후기	568	4,442	5,010
2006년도 전기	3,737	7,562	11,299
2006년도 후기	920	5,321	6,241
2007년도 전기	4,177	12,624	16,801

구 분	전문학사	학 사	소 계
2007년도 후기	1,316	8,084	9,400
2008년도 전기	5,288	14,408	19,696
2008년도 후기	2,669	10,340	13,009
2009년도 전기	8,710	19,315	28,025
2009년도 후기	4,923	12,127	17,050
계	50,894	107,889	158,783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자 현황



13. 9월 독학학위제 소식

1 독학학위제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발표일 : 9월 11일(금)

지난 8월 16일(일)에 실시된 독학사 시험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9월 11일(금)에 있었다. 합격여부에 관한 확인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bdes.nile.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합격여부는 과목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한 과목에 60점 이상이면 합격된 과목으로 인정된다. 공식적으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시험성적은 합격여부만 기록이 되며, 평점은 공개되지 않는다.

2 독학학위제 시험준비 Mini Tip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70학점 이상 학점인정받고, 독학학위제 응시전공과 동일한 전공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독학학위제 3단계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1단계와 2단계는 동일전공이 아니어도 응시가 가능하나, 3단계와 4단계는 동일전공이어야만 응시가 가능하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독학학위제 응시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학습자는 독학학위제 응시 전에 미리 학점은행제에 등록하여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3 독학학위제 FAQ

시험준비를 위한 교재 등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독학학위제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교재는 없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학습정보>시험과목별 평가영역을 참고하여 그에 맞는 대학수준의 교재를 선택하여 스스로 학습해야 합니다. 시험문제 출제위원들도 지정된 교재없이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문의 _학위관리상담본부 출제관리팀 김재열☎ 02)3780-9870]

학위관리상담본부 고사관리팀 이은지☎ 02)3780-9865]

14.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준비를 위한 TIP ①

우리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만, 좀더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의 시작은 막연한 시작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동반한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작만이 효과적이며 결과적으로 낭비될 시간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획적인 시작은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여, 말 그대로 시작을 잘하면 목표에 금새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인 학위취득을 위해서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학습계획을 동반한 출발만이 훌륭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독학학위취득시험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으로 4년제 학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독학학위취득시험을 위한 학습방법 및 선례 등을 여러 번에 걸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독학

학위제의 소식지에 실린 칼럼 및 독학학위 취득자의 수기에서 선택하여 다시 이 주제에 맞게 편집한 것으로 소개됩니다. 이번 내용은 독학학위취득시험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단계에 관한 안내입니다.

첫째, 올바른 학습정보의 입수입니다.

현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하듯이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얻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보의 선택문제는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사실도서 판매업체보다는 신뢰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먼저 얻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bdes.nile.or.kr>)를 방문하시면 시험에 관한 유용하고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당해 시험일정과 접수기간이 공시됩니다. 이를 참고하시고 각 단계별 응시자격과 전공 및 과목에 관련한 평가영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효율적인 학습전략의 수립입니다.

독학학위제 홈페이지에서 학습정보 등을 클릭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가영역(시험범위)이 나오는 곳(독학학위제 홈페이지→학습정보→시험과목별 평가영역)을 보시면, 평가영역 및 시험문제 예시가 실려 있습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평가영역(시험범위)의 파악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평가영역을 잘 파악한다면, 시험준비의 절반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학습을 여행에 비교하면 평가영역이야말로 여행의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 지도와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평가영역에 부합되는 학습교재를 선택합니다.

어떤 교재가 좋은 것인가는 다양한 학문적 특성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앞에서 제시한 독학학위제 홈페이지의 평가영역에 부합되는 교재이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평가영역에 부합된 전공교재를 최소한 2~3권 이상 참고하셔야 합니다. 시중의 큰 서점에도 없는 교재가 있는데 이런 교재는 대학가 전문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도서관 등을 이용해서서 필요한 책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넷째, 출제 방법에 알맞은 학습전략의 수립입니다.

출제문항수가 일반 대학의 시험보다 많다 보니, 교재의 처음부터 끝까지 넓은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결국 각 영역별로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골고루 학습해야 합니다. 본시험에 대비한 학습전략은 한 권의 교재를 여러 번 읽는 것보다 여러 권의 책을 두루 학습하여 책마다 달리 기술되기 쉬운 전문용어뿐만 아니라 여러 학습요소를 빠짐없이 섭렵하여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단계별 합격기준 및 성적평정 방법에 따른 학습계획의 수립입니다.

독학취득시험은 1년에 1~4단계별 시험이 각 1회씩 실시가 됩니다. 전공별로 1단계 5과목, 2단계 6과목, 3단계 6과목을 합격해야 4단계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최종단계인 4단계 6과목을 합격(총점합격제/과목별합격제 중 선택)하면 학위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명의로 수여됩니다. 단, 시작단계는 응시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목별로 60점 이상을 취득하면 과목별 합격으로 인정이 되며, 학적번호가 부여됩니다. 학사업무처



리규정에 따라 1~3단계의 시험성적은 과목별 합격여부만 결정하고 학위취득성적평점은 4단계 시험점수에 의합니다.

4단계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1단계에서 2과목, 2단계에서 2과목, 3단계에서 2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1~3단계를 공부할 때부터 4단계와 중복되는 과목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치밀하고 실천 가능한 학습일정계획의 수립입니다.

누구나 공부는 하고 싶어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요인으로 인하여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도교수도 없이 혼자서 공부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맞는 실천 가능한 과목별 주간 학습계획 및 연간 학습계획을 세워 스스로 일정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학습계획도 세우지 않고 무조건 돌진하는 것은 이정표를 잃어버린 여행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언급해 보았습니다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시작이 반이 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알맞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독학취득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 건강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평생교육 ‘가나안 농군학교’의 설립자 일가(一家) 김용기

가나안농군학교를 설립하여 이 땅에 근로 봉사 희생의 정신을 심은 개척자 (故)김용기 장로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일가재단(이사장 김상원)과 가나안농군학교, 세계가나안농군운동본부 등 일가선생의 영향을 받은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10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9월 4일과 5일 이틀동안, 농협중앙회 강당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새 시대를 향한 비전선언과 함께 일가상 시상식, 가나안농군운동세계대회, 일가 국제세미나를 하였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평생학습인으로서의 일가 김용기 장로의 생애를 소개한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설립자로 유명한 김용기는 1909년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능내리 봉안 마을에서 태어났다. 김용기는 이상촌 운동을 통해 지역의 경제발전과 협동조합, 소비조합, 공제상호조합, 탁아소의 운영, 농촌의 유·소년 그리고 청년의 교육, 청년회의 활동, 문맹퇴치 같은 활동을 통해 의식과 생활개혁에 앞장섰다. 김용기의 지역공동체 평생교육자로서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활동에 대해 살펴보자.

김용기는 봉안이상촌을 시작으로 삼각산농장, 에텐향, 황산 가나안농장과 제1가나안 농군학교, 제2가나안 농군학교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지역과 민족을 일깨우는데 일생을 바쳤고,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몸소 보여줬던 정신과 사상은 현재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다.

김용기의 대표적 사상은 복민사상 혹은 복민주의(福民主義)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새롭게 정리된 의미이다. 복민주의는 복민운동을 통해 이상촌을 건설하자는 의미로, 국민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뚜렷한 이념을 정립시키는 정신운동과 빈곤과 기아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농촌지역사회 주민들의 효(孝)의식과 자조·독립, 절약·근로·희생·봉사정신이 바탕이 되었다. 즉 주민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노력과 지도력 등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개척정신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운동인 것이다.

김용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속에서 나타난 지역공동체 평생교육 활동 내용은 각각의 활동 단계에 따라 지역공동체 평생교육자의 주요 역할이 변화됨을 볼 수 있다.

1 봉안이상촌에서의 지역공동체 평생교육자의 주요역할

봉안이상촌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협동·협업체제가 이루어진 완전한 지역공동체의 장이었다. 봉안이상촌에서 김용기는 주로 생활의 장소인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주민들의 학습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완전한 지역학습공동체를 이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봉안이상촌에서 김용기의 주요 역할은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삶 속에서 토론하는 생활에 초점이 맞춰졌고, 평생교육 활동의 초기 단계로 지역공동체 평생교육자의 역할가운데 상담자와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중요시 되었다.

2 제1가나안 농군학교에서의 지역공동체 평생교육자의 주요 역할

제1가나안 농군학교는 봉안이상촌과 제2가나안 농군학교의 중간적인 단계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제1가나안 농군학교가 처음부터 학교라는 형식적인 틀을 갖추었던 것이 아니라, 봉안이상촌과 같은 마을 공동체인 가나안농장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제1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지역공동체 평생교육자로서의 김용기의 주요 역할은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한 교육활동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는 지역 주민을 한데 모아 변화시키고 촉진시킬 수 있는 일종의 생활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특히 가나안농장 건설 초기에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직접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강연을 실시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작은 마을공동체의 단계에서 학교의 형태로 발전됨에 따라 교수자로서의 역할이 중요시되었다.

3 제2가나안 농군학교에서의 지역공동체 평생교육자의 주요 역할

제2가나안 농군학교는 완전한 형식적인 틀을 갖춘 전문적인 교육기관이었다. 처음에 개교당시 제2가나안 농군학교는 농촌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었으나, 점차 교육의 효용성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즉 기존의 농촌지도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성직자, 일반 성인, 청소년, 어린이에게 이르기까지 실제로 다양한 과정의 교육활동이 실시되었다.

제2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지역공동체 평생교육자의 역할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역할은 관리자 혹은 경영자로서의 역할이다. 작은 학습조직이 아닌 전문적인 학습조직인 학교가 되었다는 사실에서부터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행정적인 문제에서부터 교육활동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관리자와 경영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또한 제2가나안 농군학교는 점차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으로 발전하면서 학습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교수자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김용기는 지역과 주민의 특성 변화에 민감한 프로그램개발자, 확고한 사명감을 가진 지도자, 탁월한 설득능력을 가진 상담자, 산지식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교수자, 넓은 안목을 통해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지역공동체 평생교육자라 할 수 있다.

소외계층의 평생배움터 시민교육센터(군산청학야학교)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이 공존하는 군산시의 교육소외계층을 위해 40여년 동안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시민교육센터(이하 군산청학야학교)는 지역의 유일한 야학으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1965년 3월 재건국민운동 중앙회 군산시 위원회에서 ‘재건학교’로 설립한 이래 1996년 ‘군산청학야학교’로 개명, ‘청학회’를 조직하였으며, 2001년 ‘시민교육센터’로 개명하였다.

군산청학야학교에서는 농촌에 있는 비문해자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 지역 면사무소와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파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군산 본원에서는 3단계 3반으로 구성된 한글반과 1개반의 산수반으로 구성된 문해교육 과정과 중입검정고시·고졸검정고시 과정 3개 반, 문해교육 정보화지원사업과 영어기초교육 1개반과 취약계층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상 가장 어려운 부문이라 할 수 있는 재정확보와 교사 수급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군산대학교 내 자원봉사 동아리, 주변 5개 대학의 연합동아리를 조직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여 직장인과 주부들의 자원봉사를 유도하여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교사를 양육하고 있다. 인력지원 사업의 활용을 통해 청소년직장체험, 사회적 일자리창출 등 노동부 인력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지급과 유급직원 채용을 활용하는 등 어려운 교육 여건을 헤쳐나가는 주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청소년대안학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당시 8개 대안학교를 연구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야학 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PC통신 하이텔을 통해 ‘주경야독’이라는 소모임을 만들어 정보교류를 시작하였다. 2000년 지역 최초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면서 지역 공무원과 함께 평생교육사 양성교육을 받으며 다양한 이론과 실기를 갖추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군산청학야학교는 40여년동안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변화와 위기에 맞서 소외계층의 학습과 삶의 증진을 위하여 매진하여 오고 있다. 최근 군산청학야학교는 22개 지자체 중 전라북도 문해교육 거점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본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2005)의 「제2회 평생학습대상 수상사례집」의 내용을 일부 활용하였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경제교육 프로그램



2007년도 여름 계속되는 폭염으로 살인더위와 싸우며 힘들게 업무를 보고 있던 중, 어느 인터넷 기사가 내 머릿속을 팽하게 부딪치며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 기사는 많은 청소년들의 경제의식 및 금융이해력 평균 40.1%라는 기사였다.

일반청소년들의 경제의식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저소득 모자가정 청소년들의 경제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될까? 생각을 하였다.

열악한 가정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경제교육을 통해 의식을 변화시켜야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던 중, 2008년 공동모금회 신청사업으로(저소득 모자가정 청소년 경제교육을 통한 저축과 소비의 의식변화 프로그램) 제출한 프로포절이 선정되어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육을 통해 조금씩 딱딱한 경제에 대한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다. 실재교육으로 교육 참여자들이 2박 3일의 여행 일정과 계획들을 세우고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거제도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이들만 변화한다고 하여 가정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었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의 교육과 의식 변화가 시급했다.

시기에 맞춰 평생교육 진흥원에서 ‘2009년도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공지사항을 읽게 되었고 그 순간 나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보는 느낌을 받았다.

2008년도에 진행하였던 경제교육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하여 우리 루시모자원의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다.

루시모자원은 1954년 10월에 설립되어 전쟁미망인들을 돌보는 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저소득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생활하게하며 경제적 정신적 안정감을 줌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로 22세대가 생활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료로 주택을 제공받으며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기에 자립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높아 우리기관의 특징을 살려(한부모가정의 경제교육을 통한 소비의식 변화 - 엄마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경제교육) 평생교육진흥원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론교육과 재미있는 보드게임 그리고 신나는 실습을 병행하면서 진행 중이다. 실습과정으로 효율성 있는 구매활동 장보기(음식만들기)시간에는 일정 금액으로 참가자들이 규모있게 재료를 구입하고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오게 하여 모자원 가족이 함께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경제대륙, 보드게임을 통하여 가격결정의 원리, 기회비용, 정보의 중요함, 판매, 수익률 등 경제의 기초 개념을 체득하며 합리적인 소비생활의식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진행교사는 평가했다.

현재 프로그램 진행 중 설문조사 결과 합리적인 소비능력수치는 84.33점으로 18.7%가 향상하였고, 지출능력치수는 평균 21.5점에서 20.1점으로 중간자적 구매자에서 여가성 구매자로 1.4점이 교육을 통하여 변화하였다. 휴대 전화요금 상식지수는 교육 후 9%가 향상하여 71점을 나타냈다.

저축과 소비!!

현재는 적은 소득으로 힘들게 살아가지만 교육을 통해 경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의식을 갖게함으로써 미래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꿈꾸는 아동들과 어머니들의 변화를 기대하며 오늘도 수업을 준비한다(우리가족 모두 부자 되세요!!).

1 강의내용 소개

차수	강의 내용	교수방법	차수	강의 내용	교수방법
1차-4차	소비개념이해(Ⅰ,Ⅱ,Ⅲ,Ⅳ)	강의, 토론	19차-20차	유통의 이해 벉룩시장	체험
5차-6차	소비개념 보드게임	실습	21차-22차	유통의 이해(Ⅲ,Ⅳ)	토론
7차-10차	저축의 필요성(Ⅰ,Ⅱ,Ⅲ,Ⅳ)	강의, 토론	23차-24차	신용의 이해(Ⅰ,Ⅱ)	강의
11차-12차	가계부의 필요성(Ⅰ,Ⅱ)	강의, 토론	25차-26차	신용의 이해 보드게임	실습
13차-14차	가계부의 필요성 장보기	실습	27차-28차	유통의 이해(Ⅲ,Ⅳ)	토론
15차-16차	가계부의 필요성(Ⅲ,Ⅳ)	강의, 토론	29차-30차	평가회	토론
17차-18차	유통의 이해(Ⅰ,Ⅱ)	강의			

2 평가중간설문조사결과

평가지	교육전	교육후	변화도	내 용
지출능력지수	21.5	20.1	1.4점	지출능력지수가 평균 21.5점(중간적 구매자)에서 교육 후 평균점수는 20.1점(여가성구매자)로 변화함
합리적인 소비능력지수	66.13	84.83	18.7%	합리적인소비능력지수가 66.13점에서 84.83점으로 교육 후 18.7%가 향상됨.
현대전화요금상식지수	62	71	9%	현대전화요금상식지수는 수업 전 62점에서 경제교육 후 71점으로 9%가 향상됨.

3 프로그램 활동사진



〈열심히 교육 받는 모습〉



〈경제보드게임〉



〈열공하는 경제수업〉



〈장보기 후 만들어진 음식〉



〈음식 만들기 심사위원의 심사 중〉



〈어머니심사위원단〉



〈맛을 음미하며...〉



〈신나는 벵룩시장〉



〈열공하는 경제수업〉

문의_루시모자원 김명호 ☎042)256-2911

➢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투자자교육협회(의장: 황건호)와 시민을 상대로한 경제금융교육 실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평생학습문화확산 -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축제는 학습의 즐거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새로운 배움의 정보를 얻고 체험할 수 있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의 일환이다. 즉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의 의의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스스로 학습하는 의욕을 환기시키기 위한 시민주도의 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시민들에게 평생 학습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각자의 평생학습 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한 장이다. 이처럼 평생학습축제는 학습의 본질 회복을 가능하게 하고, 학습 문화와 학습사회를 진작시키며, 자발적인 학습 동아리 생성의 활력소로 작용, 생산적인 지역축제 모형을 제시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전국단위의 평생학습축제는 2001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2003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제2회, 2004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제3회, 2005년 경기도 광명시에서 제4회를 개최하였다. 2006년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제5회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2007년에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제6회 축제를 개최하였고, 2008년에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제7회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2009년에는 경기도 구리에서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평생학습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평생학습의 분위기 조성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전국평생학습축제의 주요 실적과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일시	2001.11.8(목)~10(토)	2003.9.25(목)~28(일)	2004.9.21(화)~24(금)	2005.9.23(금)~9.26(월)
주제	함께 배우는 즐거움, 나를 찾는 기쁨!	세대와 국가를 넘어 평생 학습사회로-학습참여·지역 혁신·국가발전-	평생학습의 등불을 밝히자! - 느영나영 평생학습, 함께하는 배움세상	미래를 향한 약속, 사람중심의 평생학습사회
참여기관 (전국/지역)	80개 기관/단체(70/10)	117개 기관/단체(전국62개/ 대전·충남55개) 12개 홍보 관 포함	66개 홍보관 (전국39개/제주27개)	247개 기관/21개교
주요 성과	- 한국 평생학습축제의 출발점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새로운 역할 확인 -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증대 -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 학습축제 지원가능성 발견	- 유관기관(공공기관, 지역 기업)의 적극적 지원, 협조 - 적절한 프로그램 편성 - 남녀노소 참여 - 일본 평생학습 관계자 방문 - 노인과 대학생이 자원봉사자로 적극참여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이벤트로 축제 참여 열기고조 -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제고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최초의 축제로서 향후 전국평생 학습축제 정착에 초석 제공 - 지역단위에서 평생학습 기관간 의사소통 기회제공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위상제고 - 평생학습 관련 국제 세미나 개최	- 개인의 학습 참여 동기를 높이고, 시민 사회 공동체 형성의 민관협동 체제 구축 - 평생학습 참여 주체들의 자체 역량 강화 - 학습유형의 다양성과 연계성을 보여줌으로써 학습사회를 위한 분위기 조성 - 지역의 교육력과 아울러 지역경제의 상승효과 기여 - 취약계층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 확보



	제5회	제6회	제7회
일시	2006.9.30(토)~10.3(화)	2007.9.5(수)~9.9(일)	2008.10.17(금)~10.20(월)
주제	배움의 물결, 평생학습의 뜻을 올려라 - 학습! 이젠 즐기면서 배우자!	평생학습! fun(즐거움), feel (감동), future(미래) -푸른학습도시 창원에서 희망열쇠를 찾으세요.	행복의 반올림, 희망의 어울림 - 2008 순천 - 부제 : 사람과 자연, 생태수도 순천에서 찾는 배움의 기쁨.
참여기관 (전국/지역)	512개 기관/단체	523개 기관/단체	• 76개 평생학습도시, 16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 중앙부처 및 기업체, 377개 전국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동아리
주요 성과	• 지역과 참여교육기관 및 단체의 특색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참가자의 긍정적 반응 획득 • 전국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통해 다양한 평생학습을 체험할 수 있어, 참여자 학습의욕 고취 • 실내 행사장을 확보하여 행사장 일원화 및 관람동선을 줄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축제 캐릭터, CI, 주제가, 대회기 제작 등으로 평생학습 축제 이미지 제고 • 프로그램 실명제 실시를 통해 운영기관 및 단체의 책임감과 자긍심 고취	• 대규모의 축제 개최로 평생학습 인식 확산 및 학습 의욕 고취 •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 획득 • 4개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전국 행사를 세계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러닝코리아의 위상 제고 • 개최지 특성(창원-기업, 환경, 건강 도시)을 살린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학습거리제공 • 의전 중심 탈피한 퍼포먼스형 개막식 진행으로 축제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도 유도 • 기업홍보체험관 운영으로 기관의 예산 절감 효과 및 기억특색 살린 부스구성으로 관람객 방문 편의 도모 • 16개 시·도 통합 홍보체험관 운영으로 참가기관의 예산절감효과 및 지역특색 살린 부스구성으로 관람객 방문 편의도모	•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범국민적 참여 계기 마련 • 평생학습사회 및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생애단계별 학습경험 제공 • 평생학습 참여자들의 성과 발표의 기회 제공과 삶의 보람 향유 • 평생교육전문가들의 학문적 교류와 결속 및 실천 방안 모색 • 평생학습 도시 및 기관·단체 간 상호정보 교환과 유대의 장 제공 • 지역사회의 역량 결집과 도약을 위한 교육·문화 활동의 통합 계기 • 학습국가 건설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비전 제시와 성과 공유 • 생태와 문화 가치 중심의 지속가능 발전 시대에 부합되는 평생학습축제로의 발전 가능성 제시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이 학교교육의 연장이 아닌 내재된 학습 본능을 되살림으로써, 학습은 즐거운 것, 삶의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것, 자연적인 것,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것, 그리고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하여 학습의 본질을 회복시킨다. 또한 평생학습축제는 학습자들의 평생학습의욕 고취,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 촉진,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평생학습의 성과 축하 및 공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생학습문화 진흥과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평생학습축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이루어져 여러 나라에서 매년 개최하여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자본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평생학습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역량에 따라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사회문화적 통합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별 평생학습축제도 개최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평생학습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왔다. 앞으로 평생학습축제는 단순히 축제로서의 행사로 개최되기 보다는 평생학습문화 조성 확대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 출처 : 2008 평생교육백서.

해외 정책동향

※ 해외 정책동향 이번호에는 9월 8일 ‘세계문해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문해상 수상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게재된 본 보도자료(2009. 8. 3)에는 특히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상이 비중 있게 소개되었습니다.

유네스코 문해상 수상자 발표 _ UNES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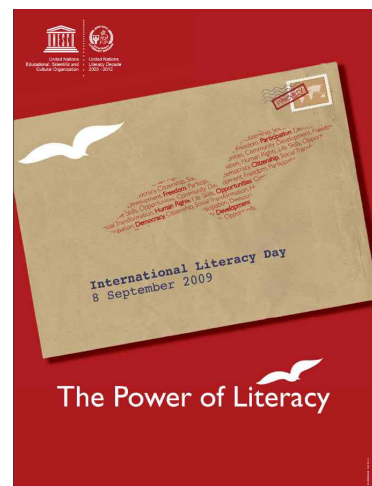
출처 : <http://www.unesco.org/en/literacy/dynamic-content-single-view/news/xxxxxxxxxxxxx/back/11922/>

유네스코는 9월 8일(화) ‘세계문해의 날’을 맞이하여 올해의 유네스코 문해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UNESCO King Sejong Literacy Prize)의 영예는 부르키나파소의 문해 교육단체 틴투아(Tin Tua)와 인도의 여성교육단체 니란타르(Nirantar)에 돌아갔다.

부르키나파소의 틴투아라는 말의 뜻은 ‘우리의 발전은 우리의 손으로(Let's help ourselves develop)’로 프랑스어가 아닌 지역어로 ‘문해 및 비형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읽기 교재를 제작하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등 문해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올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니란타르는 인도의 NGO로 ‘뉴스의 물결(News Waves)’라는 이름의 신문을 만드는 카바 라하리야(Khabar Lahariy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새롭게 글을 배운 농촌의 하층 계급 여성들이 직접 신문을 만들어 20,000여명의 독자층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유네스코 문해상은 세종대왕 문해상 외에 중국에서 지원하는 유네스코 공자 문해상이 있으며 그 수상자는 아프가니스탄과 영국 NGO에 의해서 운영되는 지역어 발전 프로젝트와 필리핀의 아고시의 지방자치 문해 조정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계속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수상하였다. 추가적으로 수상한 부탄 교육부의 비형식 계속교육 프로그램이 공자 문해상으로 수상이 결정되었다.

유네스코 국제 문해 시상식은 세계의 문해 우수성과 혁신사항을 인정하기 위하여 매년 수여되며 (UN 문해의 10년(UNLD, United Nation Literacy Decade)의 주제에 맞춰 올해의 상의 주제는 ‘문해와 권리증진(Literacy and Empowerment)’로 시상하게 된다. 본 시상식은 세계문해의 날인 2009년 9월 8일, 유네스코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2009 UNESCO 문해상 포스터〉

01. 경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교육기관 명강사 육성 연수 실시

경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인 창원도서관(관장 허민도)에서는 8월 14일(금) 경남지역의 평생교육 교·강사들의 자질 함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기관 명강사 육성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내용은 ‘성공적인 교수자의 역할과 강사 스피치 기법’을 주제로 김종천 제천솔빛학교장의 ‘성공하는 교수자의 역할’, 이창호 스피치리더십연구소장의 ‘스피치와 강단스킬’, 최은경 경남정보대학교수의 ‘성공하는 명강사를 위한 이미지 메이킹’ 특강이 있었다.

허민도 경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장은 “평생교육 강사로서의 프로의식 함양은 물론, 우리사회 평생교육 리더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지속적인 평생교육 강사 연수로 인력개발의 초석을 마련하고 정보공유와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수에는 도내 평생교육기관의 강사, 방과후학교 교·강사,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하였다.

문의 _ 창원도서관 평생학습과 운영지원담당 최말숙 ☎ 055)278-2821

02. 수원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수원시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하여 2009. 8. 19(수) 오후3시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따른 위촉식을 가졌다.

32 평생교육협의회는 당연직 의장인 김용서 수원시장을 비롯하여, 당연직위원인 조성준 수원시교육장,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원, 김영규 문화체육국장 및 위촉위원으로 최운실(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김학성(동남보건대 평생교육원장), 이재갑(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유병현(수원시 문화원장),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김윤희(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신운화(서호노인복지관장), 엄익수(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중에서 이날 조성준 수원시 교육장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들은 앞으로 수원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평생교육 제도 개선과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수원시가 시

민들이 배우는 즐거움과 나누는 기쁨을 통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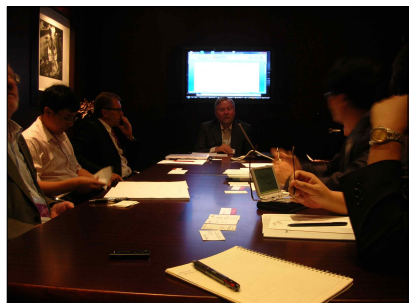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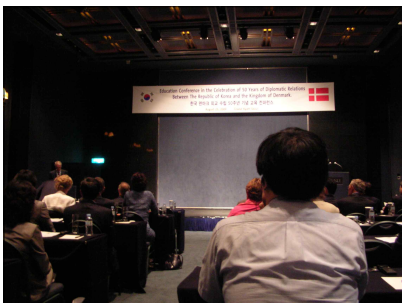
김용서 수원시장은 위촉식에서 “수원시 평생학습의 방향과 정책들이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 해 나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_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 박은미 [☎ 031)228-4542]

03. 한-덴마크 교육컨퍼런스 개최

지난 8월 25일(화) 하얏트호텔 리젠시룸에서 한국과 덴마크의 외교수립 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의 교육관계자와 덴마크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한·덴 교육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날 양국 교육관계자는 약90여명 정도가 참석하였으며, 덴마크 대사의 개회식 그리고 양국의 인사말 기조연설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덴마크 교육부장관 Bertel Haarder는 한국이 교육을 통한 고속성장으로 다른 국가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국제교류와 경쟁력을 위한 교육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대신에 참석한 이은우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교류협력국장 또한 교육의 변화가 없이는 한국의 변화를 이끌기는 어렵다고 보고, 양국의 혁신적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양국의 인사말에 이어 덴마크에서는 Jorgen Ørstrom Moller가 한국에서는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의 기조강연이 이루어졌다. 덴마크측 기조강연에서는 사회발전시기에 맞는 교육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 그리고 글로벌화 되면서 관용성 및 가치관의 정립이 요구된다고 보고, 이와 더불어 대학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측 기조강연에서도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 정책들에 대한 소개 및 양국 간의 교류 협력에 대한 사항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한국의 학점은행제에 대한 덴마크 교육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점심식사 이후 실시된 오후의 컨퍼런스는 각 분야별 소모임 형식의 워크숍이 이루어졌으며, 한국과 덴마크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정보통신 및 이러닝, 직업교육 및 훈련, 평생교육,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4가지 주제 하에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평생교육 분야에는 Arne Carlsen이 좌장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측 토론자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심한식 제도운영팀장, 숭실대 기영화교수, 성공회대 고병현교수가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덴마크에 대한 평생교육의 현황과 앞으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04. ‘학습-고용’ 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21C 새로운 평생학습 통합 생산적 축제로서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기념한 ‘학습-고용’ 네트워크 세미나가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주관으로 10월 10일(토)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학습과 고용의 연계를 통한 지역 발전’을 주제로 학습의 기능 관점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평생학습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방향성과 평생학습과 RHRD 분야의 연구와 실천을 종합한 통합적 접근방식으로 새로운 지역 평생학습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학습-고용’ 네트워크 세미나는 평생학습기관·단체 종사자와 평생학습 교육강사 등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서찬수 박사와 충남발전연구원 최병학 박사의 지역내 고용촉진을 위한 평생학습개발 및 실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경북대 현영섭 교수의 ‘평생학습에서 고용의 관계’와 성신여대 노경란 교수의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평생학습 모델’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요청되어 온 학습과 고용의 연계방안에 대한 실천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문의 _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 031)219-2888]

학회 소식 _ 2009 한국평생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한국평생교육학회에서는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맞이하여 10월 10일 토요일 구리시청소년수련관에서 평생교육학연구 영역인 지역사회교육과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이해 및 현실적 문제와 쟁점을 중심으로 심화된 논의를 통해 지향해야 할 가치 및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지역사회교육 영역에서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역량을 개발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경험과 사회적 학습과정을 탐색하는 지역학습과정의 역동성 조명해 보고자하며, 시민참여교육 영역에서는 조직과 학습의 관계, 시민조직과 시민의제 형성, 그리고 그 양자를 연계하는 시민지식과 학습의 다이내믹을 포괄적으로 조망해보는 두 영역 각각의 사례발표를 통하여 논의의 장을 펼치는 ‘2009 한국평생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한다.

- 주 제 : 평생학습사회에서의 지역사회교육과 민주시민교육
- 일 시 : 2009년 10월 10일(토) 14:00~18:30
- 장 소 : 구리시청소년수련관
- 주 최 : 한국평생교육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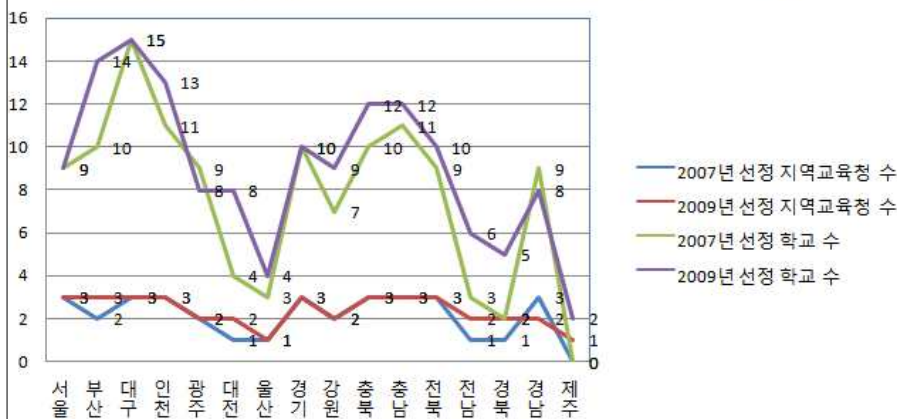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평생교육 _ 38·145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은 학교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실시되었다. 2007년부터 시작되어 2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당 3~5개 평생교육 거점 학교를 지정하여,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연수, 컨설팅 등 제도적 기반을 위한 지원을 펼쳐나가고 있다. 2007년과 2009년에 선정된 각 지역별 지역교육청과 선정 학교 수는 다음과 같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07년 선정 지역교육청 수	3	2	3	3	2	1	1	3	2	3	3	3	1	1	3	0	34
2007년 선정 학교 수	9	10	15	11	9	4	3	10	7	10	11	9	3	2	9	0	122
2009년 선정 지역교육청 수	3	3	3	3	2	2	1	3	2	3	3	3	2	2	2	1	38
2009년 선정 학교 수	9	14	15	13	8	8	4	10	9	12	12	10	6	5	8	2	145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 선정 지역별 현황



특히 2009년에는 직업·진로 및 학부모 교육 등 학교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 학교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유관기관·사업 연계 강화 등 운영체계 및 관리제도 체계화와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은 지역과 밀착한 학교

평생교육프로그램 기획을 위하여 지역사회 평생학습 수요조사 등의 운영방법을 담은 매뉴얼 개발과 우수 사례 홍보 자료집 발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다양한 평생교육분야의 소식을 홍보하는 채널이 되고자 ‘전국은 평생학습중’ 섹션을 통하여 국내·외 평생교육 관련 행사소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도교육청,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도시 등 각종 평생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정보와 소식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달에 발행되는 평생교육진흥원 소식은 경기도 구리시에서 개최되는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로 인해 **10월 19일(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10월호 평생교육진흥원 소식지에 홍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9월 25일(금)까지 nilepr@nile.or.kr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_ 경영기획실 대외협력팀 윤윤진 · 권순영 [☎ 02)3780-9717, 9719]

- **발간인** : 박인주(평생교육진흥원장)
- **홍보출판심의위원** : 박인중(경영기획실장, 위원장), 최일선(대외협력팀장, 간사)
권재현(전략기획팀장), 이경아(정책개발팀장), 심한식(제도운영팀장),
진명석(출제관리팀)
- **편집실무위원** : 경영기획실 - 김세화(전략기획팀), 엄태희(지식관리팀)
평생교육정책본부 - 이은주(정책개발팀), 남상현(사업진흥팀), 서순영(연구문제팀)
학점은행운영본부 - 이범수(제도운영팀), 민지혜(평가인정팀), 한경아(학사행정팀)
학위관리상담본부 - 이은지(고사관리팀), 김재열(출제관리팀), 황정현(학사상담팀)
- **검수 및 편집** : 최일선, 윤윤진, 권순영(경영기획실 대외협력팀)
- **발간일** : 2009. 9. 14

